

세계일보

변협·유니세프한국委, '유산 기부문화' MOU

김태훈 입력 2018.01.24 19:36



24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변협 김협 협회장(앞줄 왼쪽 3번째)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 4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4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와 유산 기부 문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변호사 197명을 재능기부 변호사단으로 위촉했다. 변협은 유산 기부 운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서로 협력함으로써 유니세프가 추구하는 지구촌 어린이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변협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간 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유산 기부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양 기관 사업 홍보 등이다. 변협 관계자는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유산 기부가 활발히 이뤄져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